| 현불 논단 |

코로나19 유행 1년에 부쳐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1월 20일 코로나 발발 1년
'거리두기' 생존 법칙 되며
기존 '삶의 방식' 뒤흔들어

코로나19 발생과 대유행은
아만·집단 이기주의가 원인
모두 연기법 無明서 비롯돼

연기법 실천이 필요한 시대
모든 존재들이 함께 춤추는
연기의 광장을 만들어 보자

코로나19의 긴 터널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시점이 지난해 1월 20일이니 1년이 지났다.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 간 지속적 전염 가능성은 낮다"고 했는데 이를 어쩌랴, 지금은 전 지구촌이 이 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은 이제 전 인류를 공황 상태에 빠트리고 있다.

이제 코로나는 인간 삶의 양식(way of life)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존법칙이 되면서 개인적인 삶의 양식에서부터 집단적 삶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선진 문명'으로 칭해지던 서구 문명의 속살과 민낯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선진국들은 코로나19에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공동체성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 중세시대의 종언을 초래했듯이 코로나19는 인류문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관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대구에서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당시 어느 간호사의 절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곧 너이고, 네가 곧 나인 듯 서로를 지켜야 한다."

이 간호사의 절규는 바로 연기법의 실천을 요구한다. 불교 사상의 핵심은 연기론에서 출발한다. 붓다가 보리수 아래 7년 동안의 사색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연기론적 세계관이다. 연기론적 세계관은 모든 존재가 상호의 존하여 생성되고 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기법에서 무아와 자비 사상이 나오고 중도 사상이 나온다.

〈중아함경〉에서 "연기를 보면 곧 진리를 본 것이요, 진리를 보면 곧 연기를 본 것이다"라고 붓다는 설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생과 대유행은 바로 연기법에 대한 무명(無明)에서 나온 것이다. 나라는 아만, 인간 중심의 사유, 집단과 국가이기주의의 무명이 만들어 낸 비극이다.

붓다의 연기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내용과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그 방법도 매우 정교해졌다. 연기론은 시대의 요구와 연기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었다. 그러나 붓다 입멸 1,500년이 지난 후 연기론의 생동감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있다.

우리는 지식정보사회로 불리는 시대에 살면서 삶의 양식과 사유의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연기론은 삶의 괴로움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발하였는데, 오늘날 삶의 괴로움 영역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지구촌 전체로 확대되고 유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불완전한 인간이 지구촌의 생명을 전멸시킬 수 있는 다량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다양한 생물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이념과 문화, 가치관의 갈등으로 인한 싸움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질병의 등장과 대유행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불교는 단순한 믿음이나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박물관에 진열된 골동품이 결코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는 것이어야 한다. 이 시대의 연기법은 새로운 '창발'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을 연기법으로 체감하고 공감하는 것이 '공명(共鳴)'이고, 연기법의 틀에서 생활하고 실천하는 삶이 바로 '자비'이다.

이제 연기법의 지혜와 자비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든 존재가 함께 춤추는 연기의 광장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꿈이라도 좋다. 그 꿈속에서 연기법의 묘용이 창발할 것이니.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 만에 걸려온 반가운 목소리에 나의 목소리 톤도 올라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황을 물었다. "매일 똑같죠. 목요일은 아내에게 갑니다."

거사는 아내를 보낸 지 어느새 3년이 되었다. 집 가까이 있는 납골당에 아내를 안치했다고 한다. 목요일마다 아내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 그 정성에 가슴에 잔잔한 감동이 일었다.

4년 전에는 아내와 함께 몇 번 만났었다. 아름다운 아내였고,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30년 째 투석중이어서 물 한모금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스님,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어요. 투석을 30년을 했으니 말해 뭣하겠어요. 이제 그만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말했다. "나 한 번 더 실려 가면 그냥 보내줘요. 나 정말 힘들어." 그때는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나도 같이 울었다.

며칠 후, 거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스님, 집사람이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목소리에 나는 한달음에 병원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보살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여러 의료기를 주렁주렁 달고 간신히 숨을 헐떡이고 있는 힘든 모습을 보는데 '보내달라' 했던 말이 떠올랐다. 병문안을 마치고 거사와 병원 로비에 마주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스님 이제 보내줘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거사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내는 병고로 힘들었던 한 생을 마감했다.



그림 · 최주현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거사를 만났을 때 많이 힘들어 보였다. "요즘은 마음이 좀 어떠세요"하고 물으니 고개를 떨군다. "스님, 제가 아내를 가게 한 것 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지금까지 30년 동안 수없이 중환자실을 오갔지만, 한 번도 아내를 보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아내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내면서 정말 아내가 떠나가 버렸고, 그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괴롭다고 하였다.

"거사님,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만, 아내분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사님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하고 물으니, 다시 고개를 떨군다. "뭐라고 위로해 드려야 할지 막막했다. "제가 느끼기에 거사님께서 많이 외롭고 허전하신 것 같아요"하니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랬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다. 거사는 이제 아내 없는 시간 속에서 아내와의 추억을 기억하며 산단다. 미뤄두었던 다리 관절 수술도 했고, 이제 건강한 마음의 다리도 생긴 것 같다. 다음 생에 꼭 만날 거라며. 다음 생에 만나면 더 잘해주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는 '아내를 위한 사모곡'에 코끝이 찡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템플스테이로 '사회치유' 나서야

코로나 사태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사회적 아픔과 갈등, 지친 마음들을 치유하는 방안으로,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올해 계획을 밝히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한 사회적 치유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해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일반인 대상 템플스테이를 거의 운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방역 관계자와 의료인, 소상공인과 여행업계 관계자 등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고통으로 힘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꺼이 템플스테이에 초대했다. '쓰담쓰담' '토닥토닥' 템플스테이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긴 시간 방역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치열한 싸움을 하며 에너지가 고갈된 방역 · 의료인들은 잠시나마 산사에 몸과 마음을 의탁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생계의 절벽에 내몰린 채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던 시민들 역시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고 다시 살아갈 의지를 다졌다.

치유와 정화는 템플스테이가 가진 힘이다. 이는 사찰이 불교라는 종교적 공간을 넘어,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곁에서 함께해 온 공간으로서 존재하기에 가능하다. 올한해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사회적 치유활동에 대중들의 관심이 모이는 이유일 것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홍보와 디지털 콘텐츠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템플스테이는 물론, 사찰음식과 불교문화 등 전통을 활용한 사회치유 기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교, 본연의 가치 드러내야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은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상의 변화는 곧 그 일상을 영위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전세계적인 문화 흐름과 아젠다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문화 확산, 뉴노멀과 저성장사회 등 우리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개념은 개인주의, 인간소외를 예고하기도 한다. 인간은 더 소외되고 외롭고 우울해 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인간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종교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럼에도 종교를 향한 현대인들의 냉소적인 시선, 탈종교화는 종교 본연의 가치와 역할마저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종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종무행정 방향'은 코로나 이후 종교에 대한 모든 고민과 대안, 그리고 방향성이 담긴 연구보고서다. 시대적 변화에 직면했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종교, 종교를 지원하고 본연의 가치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끌어낼 역량은 부족한 정부정책과 행정에 대한 고민이 그 출발점이다.

국민과 종교간 거리를 좁히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불교 뿐 아니라 각 종교계가 당면한 문제를 처절하게 인식하고 함께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종무행정 또한 이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대적 변화는 이미 도래했다. 이제, 종교가 변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새해에도 BTN과 함께
어두운 마음은 불행을 불러들이고 밝은 마음은 항시 행복의 길을 튼다
성우스님 시집 '마음'발췌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